

# 보성군, '2025 보성 국가유산 야행' 열선루에서 24일 개막

## 빛으로 물든 보성의 밤, '조선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보성을 일원에서 '2025 보성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성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수군 재건을 위한 군량미를 확보했던 곳으로,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라는 장계의 배경지다.

또한, 오충사에는 보성 출신 장수인 선거이 장군 등 다섯 명의 충신의 위패가 봉안돼 있으며, 보성향교는 일제강점기 항일 정신의 불씨가 된 '제주조난사건'의 현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국가유산 야행(夜行)'은 '조선의

끝에서 희망을 외치다!'를 주제로, 보성의 역사적 서사를 빛과 예술, 체험으로 재구성한 역사 문화 축제로 펼쳐진다.

올해 야행은 8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미디어아트와 조명으로 문화유산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야경(夜景), 역사 인물이 직접 해설하는 야로(夜路), 이순신과 선거이 장군의 이야기를 담은 야설(夜說),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당근마켓1597', 향토 음식이 있는 야식(夜食), 그리고 보성 차(茶) 명상 프로그램 야숙(夜宿)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대표 체험 콘텐츠인 '군량미를 구하라!'는 임진왜란 당시 보성군 특량면에

서 군량미를 모아 수군을 재건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참여형 역사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현장 체험 부스를 돌며 쌀을 모아 '조양창(漕糧倉)'에 기부하고 인증서를 받게 되며, 당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한마음으로 모았던 '십사일반의 정신'을 현대의 나눔 문화로 되살리는 상징적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성을 열선루·오충사·보성향교·춘운서옥·방진관 일원은 미디어아트 조명으로 연출된 '빛의 거리'로 변신한다. 고즈넉한 한옥과 돌담길이 은은한 조명 속에 살아나며, 관객들을



에게 가을밤 정취 속 감성적인 역사 여행을 선사한다.

보성/김운기 기자

### 완도군,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조성 프로젝트 가동 중 氣·예술, 소리, 경관, 문학, 역사, 음식 등 치유 공간 조성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쉽과 회복'을 위한 여행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쉽과 회복'의 공간을 찾는다면 청정 자연, 푸른 바다와 숲을 활용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선도하며, 각기 다른 매력의 섬을 품은 완도군이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섬마다 다양한 관광 자원을 치유와 결합하여 머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국내 유일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치유의 섬 완도'는 섬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치유 공간으로 삼아 해양, 산림, 예술, 경관, 문학, 역사 등 권역별 특화 치유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먼저 완도읍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난대림을 기반으로 한 산림치유단지 등 '산림 치유' 공간과 정동리 구계등에는 '소리 치유', 해변공원 일원에 치유 공원을 조성해 야간 경관을 활용한 '빛 치유' 공간을 만들고 있다.

약산면의 해안치유의 숲에 치유 숲길 등 치유 정원을 조성하여 '산림 치유', 청산도는 범바위를 중심으로 '기(氣) 치유'를 할 수 명상 공간, 11개 슬로길을 거닐며 일상 속 치유를 할 수 있는 '경관 치유'의 대표 섬으로 만드는 중이다.

노하·보길 권역은 '예술·문학 치유'의 섬으로 거듭난다.

국토부 주관 130억 원 규모의 「민관 상생 투자 협력 공모 사업」 선정으로 섬 미술관, 예술 마을 조성 및 섬 예술제 개최 등 '치유의 예술 섬'을 조성하고, 운산도 문학 치유 공간과 마음치유센터 조성, 예작도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완도읍과 고금면에서는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 등 위대한 해양사를, 소안도에서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마주하며 '역사 치유'를 할 수 있다.

읍면별 대표 음식 개발로 '미식 치유'의 경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0월 30일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춘양분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11월 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고가의 농업기계 구매 부담을 덜고자 저렴한 가격에 농업기계를 임대 활용할 수 있고,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화순군에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능주분소가 2009년 9월에, 동북분소가 2014

###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하게 농업기계 임대활용 가능

####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춘양분소 11월 3일부터 본격 운영

년 5월에 문을 열었으며, 춘양분소가 2025년 11월에 운영을 앞두고 있다.

춘양분소 신축공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농업기계 임대 물량을 사업소 간 분산처리 하고, 원거리에 소재한 지역민이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하게 농업기계를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춘양면 석정리 112번지 일원 8,315㎡ 부지에 1동/2층(건축 연면적 980㎡)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농업기계 보관창고 및 수리공간, 직원 휴게실 및 세탁실 이외에 농업기계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실(수용 30명)

과 실습장(면적 2,000㎡)을 조성하였다.

현재 임대용 농업기계 31종/58대(관리기 등)가 비치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기종에 다수의 농업기계가 비치될 수 있도록 임대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정수 소장은 "앞으로도 소득이 높은 부유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담양군, 영산강 문화공원 일원에서 인구늘리기 캠페인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지난 19일 영산강 문화공원 일대에서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 정착 유도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홍보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담양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소소한 공생, 어울림장터'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행사장을 찾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담양군 주요 인구·청년정책과 주소 이전 시 제공되는 혜택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군은 지역 내 정착 지원을 위해 전입세대 공간꾸러미,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금자리 지원, 출생기본수당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정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발굴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중욱 기자



#### 장흥무산김(주), 'BRCGS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 획득

장흥군은 지역 수산식품기업 장흥무산김(주)가 영국 인증기관 LRQA로부터 BRCGS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BRCGS(British Retail Consortium Global Standard) 인증은 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유통업체들이 요구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표준 중 하나다.

이번 인증으로 무산김은 제품의 위생관리·품질보증·위해요소 통제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현재 국내 김 제조업체 중 BRCGS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경남 창원소재 외국계 회사와 장흥무산김(주) 단 두 곳뿐이다. 그중 BRCGS와 ASC-MSC 해조류 국제 유기 인증을 모두 취득한 기업은 장흥무산김(주)가 유일하다. /장흥군 제공



#### 곡성읍-남원시 금지면, 자매결연 교류 행사 개최

곡성군 곡성읍행정복지센터(읍장 조명영)는 17일 자매결연 지역인 남원시 금지면과의 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두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뜻을 다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행사에는 곡성읍장을 비롯해 이장단, 사회단체협의회장 등 20여 명이 금지면을 방문하여 기념식을 통해 우호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였으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읍은 교류행사를 통해 오는 10월 23일부터 곡성군에서 개최하는 '제25회 곡성신청어린이대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남원시에서 개최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현장과 피오리움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함께 견학하며 양 지역이 상호 촉진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곡성/이정수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